

제공일자	2015. 1. 27(화)	담당자	김해식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41

총2매

제목 :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김해식 연구위원, 조재린 연구위원은 『보험 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테마진단).
- 이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(IFRS 4 phase 2)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에 집중되고 있음. 이에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봄.
- IFRS 4 phase 2를 적용한 사례분석 결과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인식 형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.
 -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지급준비금*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표시되고 있으나, phase 2는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(BEL)**, 위험조정(RA)***, 서비스마진(CSM)****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함.

주: * 지급준비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

** 최선추정치(BEL: Best Estimates of Liabilities)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시간가치를 반영(할인율을 적용)하여 산출

*** 위험조정(RA: Risk Adjustments)은 예상 밖의 손실에 대비하여 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

**** 서비스마진(CSM: Contractual Service Margin)은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이익으로서 서비스 제공 전의 이익 인식을 방지하고자 부채에 포함

-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인식 패턴이 변하는 원인에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위험조정 반영과 손해액 발생의 가정 변화가 대표적임.
- 손해액 발생의 가정 변화는 최선추정치(BEL), 위험조정(RA), 서비스마진(CSM) 모두에 영향을 미침.

□ 이에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구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phase 2는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보험부채 증가 여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
- 또한 일반손해보험에 phase 2를 적용할 때 초기에 인식하는 이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초기 자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

□ 한편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할당방식(PAA: Premium Allocation Approach) 적용은 손해보험회사의 이행기 부담을 줄여줄 것이나, 그 적용 기준과 계리 및 재무측면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
- IFRS 4 phase 2는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계약이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간편법으로 보험료할당방식을 허용함.
- 보험료할당방식은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

첨부 : 테마진단 “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”. 끝.